



### 담양청지도위·경찰, '학교폭력' 합동 예방교육

담양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서생현)와 담양경찰서(서장 양수근)가 지난 11일 담양중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디지털 성범죄·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주최하고 담양경찰서가 주관했다. 1부에서는 황혜성 NGO 교육학 박사가 시청각 자료와 실제 사례를 활용해 학교폭력 유형과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2부는 이슬 학교전담경찰관이 디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도박 중독의 위험성, 처벌 수위를 안내하며 학생 경각심을 높였다. 교육은 퀴즈, 소감 발표, 경품 증정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 학생은 "사례 중심 설명이라 이해가 쉬웠다"며 "목적 시반 드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빛고을학생기술봉사단, 농촌마을서 봉사

빛고을학생기술봉사단은 15일 동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상반기 2차 농촌마을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진)

빛고을학생기술봉사단은 광주광역시 소재 직업계고등학교 11개교 248명(학생 227명, 교사 21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이다. 현재 전기·건축·미용·제과제빵 등 다양한 전공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교육청과 자원봉사센터, 광주 동구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광주지역 직업계고 학생 8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전공 기술을 살려 동구 용강경로당과 지원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주택 조명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노병하 기자**



### 무안경찰-전남경찰 교통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무안경찰은 15일 전라남도 무안군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전라남도경찰청 교통과와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교육은 지역 내 독거노인 약 1300명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어르신과의 접점이 많은 이들을 통해 교통안전 정보를 현장 깊숙이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복지 현장 중심 예방 활동에 나섰다. 교육 내용으로는 △고령 보행자의

사고 위험 유형 △야간 및 횡단 중 안전 수칙 △끼어들기,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교통 기초질서 위반행위의 위험성과 참여형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단순 전달을 넘어 생활지원사들의 체감도와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생활지원사분들과의 협력이야말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서구가족센터 MOU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광주서구가족센터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양육가정의 부모의 양육 역량강화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제작한 아동권리 기반 부모교육 콘텐츠인 '충분히 좋은 우리·아동학대에방편'을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이주배경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광주서구가족센터 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사용 양육자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긍정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이 기자**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마음 돌봄 프로그램'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광주서부중학교 등 관내 61개 학교 교원 637명을 대상으로 '학교 찾아가는 교원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5일 서부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활동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 등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원의 정서적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특히 전문 강사가 각 학교를 방문해 교원의 심리 치유와 정서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공예, 원예, 필라테스 등 체험형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에코라이프(나의 반려식물) △기분 좋은 향기(아로마 캔들 만들기) △마음을 전해요(사랑의 바스킷) △나를 위한 꽃다발(마이부케) △품격있는 만남(호접란을 품은 보자기) △찾아가는 필라테스(매트 위 필라테스) 등 8개다. **노병하 기자**



### 광주 북부소방, 주유취급소 합동 안전점검

광주 북부소방은 15일 오전 관내 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소방 현장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은 소방 현장대원 예방점검 실무능력 향상,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로 인한 위험물 누출 및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북부 관내 주유취급소 2곳, 구조 및 설비 기준 준수 여부 △무단 변경 등 허가사항

위반여부 △정기점검 이행여부 등으로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주유취급소는 작은 부주의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인 만큼 안전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유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화재 예방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우 기자**



### 중화중의약학회,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방문

중화중의약학회(中華中醫藥學會) 대표단이 최근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을 방문해 한국의 한의치료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고,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15일 동신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서는 천준평(Chen Junfeng) 부비서장을 포함한 대표단 6명이 참여했으며, 병원의 침구실, 약제실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한국 한의학의 진료 방식과 제도 운영, 보험 적용 범위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이영수 병원장과 대한침구의학회 김재홍 회장 등 관계자들은 대표단을 맞아 병원 운영, 한의치료 방식,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 내에서의 한의 진료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병원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의 시스템과 한국 한의치료의 실제 현장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 및 임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호남대 HUSS, '2025 HUSS 캠프' 참가

호남대학교 글로벌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2025 HUSS 융합캠프'에 참가했다. (사진)

15일 호남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전국 10개 컨소시엄 소속 대학 학생 및 사업단 관계자 등 총 900여 명이 참여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경험했다.

'HUSS 융합캠프'는 인문사회 기반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캠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접점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캠프는 △전문강좌 중심의 'HUSS 아카데미' △교류와 체험 중심의 '휴스퀘어(HUSS-SQUARE)'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HUSS인의 밤'으로 구성됐으며, 컨소시엄별 교육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성과포럼'도 함께 열렸다. **노병하 기자**



###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 야간 합동순찰 실시

광주광역시 남부경찰 백운지구대가 백운1동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가진 후 관내 취약지역에 민·경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지난14일 간담회를 통해 평상시 경찰 활동 사항과 자율방범대 고충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민·경 합동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동 원룸일대 및

석산고 주변, 백운2단지후면시아 일대 주택가 주변 범죄우려지역을 순찰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남부경찰 백운지구대는 "범죄예방활동과 민·경지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정준 기자**